



제325회 도의회 정례회

2013. 12. 10. (화) 11:00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 시 정 연 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도정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계속된 제325회 정례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에 대하여는 추호의 소홀함이 없이 소중히 도정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금년 한해 충북도정은 충북미래 100년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더욱 비옥하게 일구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함께하는 충북'실현을 위해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160만 도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도정사에 한 획을 긋는 알찬 성과들을 많이 거양하여 도격(道格)을 한층 더 높은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에 2013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도민과 함께 일궈낸 금년도 충북 10대 도정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운 것은 최근 우리 충북과 충청권 인구가 증가하면서 희망의‘영충호 시대’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영충호 시대’의 도래는 우리 충북의 힘과 위상과 기개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우리 충북이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국민을 통합시키는 융합의 조정자로서 기능을 다해 나가야 하는 시대적 과제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둘째,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고부가가치 화장품·뷰티산업을 충북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창출하면서‘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의 입지를 더욱 탄탄히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디어 하나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오송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는 관람객 118만 7천명, 상담실적 6,890억원이라는 기록과 함께 창조경제의 성공적 모델로 충북경제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습니다.

셋째,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통하여 지구촌 변방의 작은 충북을 전세계에 알리며‘충북의 세계화’를 촉진하였습니다.

조정의 불모지를 개척한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님을 비롯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82개국, 2천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것은 물론, 세계 최고의 시설과 경기 운영 능력을 보였다는 호평 속에 이제‘하면 된다’라는 충북인의 저력을 힘껏 발산하였습니다.

넷째, 6년여의 긴 산고 끝에 이뤄낸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충북경제의 또 다른 신화를 창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오랜 시간과 많은 우여곡절 끝에 160만 도민이 함께 만들어낸 위대한 합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1만 2천여 공직자의 땀의 결실인 정부합동평가 2년 연속 최우수도를 달성하여 충북도정은 전국 최고의 명품 행정역량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9개분야 중 6개분야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하여 40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헌정사상 최초의 주민투표로 성사된 청원·청주 통합, 전국 최초로 실시한 근로자 출퇴근 심야버스 운행, 도지사 관사를 재활용한 충북문화관 개관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충북 공무원들의 자랑스러운 업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여섯째,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방침에도 불구하고 도정 사상 최대규모인 3조 8,839억원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 정부예산은 정부의 SOC예산 감축기조와 복지예산 확대 등 사상 유례없는 정부예산 확보전쟁 속에서 도청 전 직원이 중앙부처의 문이 닳도록 뛰어다닌 결과물이라 그 어느 해 보다도 값진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32년만의 쾌거인 제94회 전국체전 종합순위 8위 달성과 제59회 부산~서울 대역전 경주대회 8연패의 신화를 창조하는 등 충북체육의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이는 그동안 꾸준한 학교체육 활성화 노력과 실업팀, 대학팀 창단 등 충북교육청과 충북도의 선제적인 체육인프라 확충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덟째, 정부의 지속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등 지방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3년반 동안 2,148개 기업과 18조 1,258억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에 힘입어 충북경제는 연말까지 수출 140억불 달성과 함께 58개월 연속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홉째, 전국 최초로 '유기농특화도 충북'을 선포하고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정부로부터 국제행사로 승인받음으로써 충북이 세계농업의 추세인 친환경 유기농업을 미래 먹거리로 선점하게 되었습니다.

유기농은 각종 FTA 협정으로 홍수처럼 밀려오는 외국의 값싼 농산물에 대응하여 거꾸로 우리의 고급농산물을 외국 고소비층에 수출하기 위한 필수전략이며, 경쟁력 있는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충북의 농업수출도 4억 5천만불 수출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열째, 9988 행복나눔이 사업의 정착과 9988 행복지킴이 사업의 시행으로 '치매·중풍 걱정없는 충북', '실버토피아 충북'을 착실히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도 도정을 빛낸 많은 성과들은 항상 도정에 깊은 신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160만 도민 여러분과 도정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의원님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정부 지원사업과 인건비 등 법정·의무 필수경비를 조정 반영하고,

이월 대상사업을 확정하는 한편 자체사업은 예산반영이 꼭 필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는 등 금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6,865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 1,735억원, 특별회계가 5,130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3조 6,542억원의 0.9%인 323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가 10억원, 특별회계가 313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재산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 77억원, 지방교부세 70억원을 증액하고,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119억원, 지방채 18억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고보조사업 141억원, 인건비 41억원, 입찰 차액 등 집행잔액 161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재해위험 지구 정비 등 특별교부세 7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 주요사업으로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19억원, 태양광 테스트베드 25억원, 충북문화예술회관 건물 매입 40억원, 보은·괴산소방서 신축 3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도민을 위한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에는 저를 비롯한 1만 2천여 공직자 모두가 힘을 합쳐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의 기반을 굳건히 다져 왔다고 자부합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영충호 시대의 본격 개막에 맞추어 지금까지 도민께서 보여주신 ‘함께하는 충북’의 결집된 힘을 동력으로 삼아 우리 충북이 ‘영충호 시대’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정의 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영충호 시대에 우리 160만 도민이 염원하는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을 기필코 실현하겠습니다.

이제 계사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금년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밝아오는 갑오년에도 의원님과 의원님 가정 모두에 큰 영광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10일

충청북도지사 이시종